한 “저희 갈게요.”

채 “내일 봐용~”

도 “얘들아. 같이 가~”

학생회 야간활동이 끝나고, 다들 학생회실을 빠져나갔다.

나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아직 학생회실에 남아있는 한 명이 마음에 걸렸다.

“은혜 선배. 안 돌아가세요?”

“아직 할 일이 남아서, 조금 남아있다가 가려고.”

“할 일이면…. 학교 축제 일이요?”

“응. 계획 검토랑 이것저것 좀 해두려고. 왜?”

“제가 도와드릴 일은….”

“후후. 없다니까 그러네. 걱정하지 말고, 후배는 빨리 집으로 가. 너무 늦으면 걱정하시겠다.”

“…아뇨, 뭐. 늦어도 괜찮아서요.”

은혜 선배, 정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걸까.

아무리 그래도 축제를 맡으면 분명히 손이 부족할 것 같은데.

“…먼저 가볼게요.”

“응. 잘 가.”

마지막까지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는 은혜 선배를 뒤로, 나는 학생회실에서 나왔다.

( 복도로 이동 )

축제라고 해도 엄청나게 큰 행사는 아니긴 하다. 선생님도 사진 찍을 정도로만 하라고 했으니까.

은혜 선배는 또 학생회장이니까, 이것저것 많이 해봤을 테니까. 혼자서도 아마 척척 할 수 있는가 보다.

( 정문으로 이동 )

만약 정말로 선배가 도움이 필요했으면 말했겠지.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도 되겠지.

나중에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도와주면 되니까….

“…후우.”

머릿속에서 차오르던 자기 합리화를 몰아냈다.

은혜 선배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입 싹 닫고 집으로 돌아가다니. 도저히 할 짓이 아닌 것 같다.

별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뭐라도 하자. 정 안되면 심부름이라도 하면 되니까.

(복도로 이동)

(학생회실 앞으로 이동)

마음을 다잡고 돌아간 학생회실 앞. 안으로 들어가려고 문손잡이를 잡았을 때.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

저번에 은혜 선배가 불러 찾아갔던 때처럼 안에서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다만 지금은 밤이라 조용했고, 작은 소리도 잘 퍼졌고, 그리고 또

“그 인간, 교감 선생 발 핥아야 하는 건 알겠는데. 좀 적당히 해야지.”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도 저번보다 컸다.

“뭐, 학교 축제? 이딴 걸 나한테 짬 때린다고? 달린 게 머리가 아니라 대가린가?”

차갑고, 혐오감이 가득 찬 목소리. 하지만 귀에 익숙한 누군가의 목소리.

아니야.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선배일 리가 없지.

다른 사람이 그새 학생회실에 들어와 있는 게 분명하다.

그래야만 한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문을 열었고.

“…아.”

은혜 선배와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눈을 깜빡인 순간.

<콰당탕>

(화면 회전)

(검을 빼 들고 주인공을 깔아뭉갠 고은혜)

“넌 노크할 줄도 몰라?”

은혜 선배에게 제압당했다.

유도인지 뭔지 모를 기술로 학생회실 바닥에 처박혔다.

검은 귀를 자를 것 같이 얼굴 가까이 붙어있고, 명치를 짓누르는 발은 당장이라도 으깨버릴 듯이 세게 숨을 조여왔다.

“선, 배…?”

가까스로 은혜 선배와 눈을 마주쳤지만, 바로 시선을 돌렸다.

내가 알던 선배의 눈과 다르다. 상냥하고, 나를 도와주던 은혜 선배의 눈이 아니다.

“언제부터 엿들었어?”

“여, 엿들은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얘기했어? 문밖에 있는 너 들으라고 말한 줄 알아? 아니야. 그러니까 넌 엿들은 거지.”

“….”

“또 묻게 하지 마. 언제부터 들었어.”

“주,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한 때부터….”

“내 눈 보고 똑바로 말해. 진짜야?”

죽여버리고 싶은 게 나인 것처럼, 선배의 눈동자가 번쩍였다.

“지, 지, 진짜예요….”

“엿들은 것도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소, 소리가 들려서….”

“…그래. 그래 보이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

“네가 알아버린 게 중요한 거지.”

“으윽…!!”

선배가 다리에 힘을 주자, 내장이 짓눌리는 고통이 퍼졌다.

“어디 가서 네가 씨불이고 다니면 귀찮거든. 학생회장이 사이코패스다, 미친 여자다. 이러면 말이야.”

“어차피 네가 말해봤자 아무도 안 믿겠지. 안 좋은 소문 좀 돌고 끝나려나.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해. 그렇게까지 말할 생각이라면 저질러.”

“그 대신 후회하게 해줄게. 입단속 한 번 잘못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해줄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선배의 눈이 말하고 있었다. 아마 지금 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어떤 끔찍한 일이 날 덮칠 거다.

“…그게 싫으면.”

나를 짓밟던 힘이 아주 조금 약해졌다.

“어디 가서 오늘 일 꺼내지 말고, 평소처럼 지내. 그렇게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알겠어?”

“느, 네에….”

“좋아. 그럼 가봐.”

선배의 발이 치워지자마자, 엉거주춤 바닥에서 일어났다.

도망쳐야 한다…! 죽기 전에 도망쳐야 해…!

“아, 잠깐만 기다려.”

“…!!”

“뭐, 하나 묻는 거 까먹었는데.”

은혜 선배, 아니 사신이 검을 빼든 채로 물었다.

“너. 학생회실엔 왜 왔어?”

내가 여기 왜 왔더라. 패닉에 빠진 뇌가, 이제는 먼 옛날 일 같던 기억을 다시 꺼냈다. 지금 날 이 상황에 이어진 내 잘못된 판단을.

“그, 그게. 선배 축제 일 도와주려고….”

“….”

사신은 말없이 나를 응시했다.

“뭐, 뭐라도 도와드릴까 해서….”

“….”

“그만 가볼게요….”

도망치듯 나가는 나를, 선배는 다행히 붙잡지는 않았다.